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1. Vol. 308

기획특집_ 2021년 소의 해. '양양한우'와 함께 좋은 기운 받아가실



신년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을 돌아보니 하루하루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군민 모두가 더 나은 양양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일 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양양군만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코로나19 창궐에도 20~30대를 중심으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더 희망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은 2021년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덕분에 '청정양양'이라는 타이틀과 '핫플레이스 양양'이라
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지켜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서핑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소규모 문화 공간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군 관리계획 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팽창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선택하고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에 이뤄낸 모든 성과들은 모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21년은 민선 7기의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도시 확장 및 재생을 통한 정주여건은 개선될 것이고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며
관광은 활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양양소식
Vol. 308

CONTENTS

양양소식 · 308호

| 발행일 2021년 1월 4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2021년 소의 해, '양양한우'와 함께 좋은 기운 받아가소!
- 07 이슈엔피플_ 소띠 해에 새 가족을 맞는 진순조씨 가족
- 10 마을가는 길_ 현북면 원일전리
- 13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낙산사 의상대 일출
- 14 맛있는 양양여행_ 독상문화 풍습

지역별, 분야별 균형 발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재난 재해에 모든 군민은 안전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동력으로 삼아 남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쇄신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힘든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곗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도전과 실패가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도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열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상은 떠들썩하게 'POST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된 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방역을 뛰어넘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할 시점입니다.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19는 종식되겠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의 일상은 과거를 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 설정의 방향은 '변화하고 있는 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멀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은 새로운 양양을 맞이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의 일상이 달라지는 양양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 행복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4.

양양군수 김진하

의기양양

16 YANGYANG NEWS

19 설악산 오색케이블카_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20 의정소식_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양양군의회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이라, 흰 소띠의 해다

열린양양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ssugi0129@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2021년 소의 해, ‘양양한우’와 함께 좋은 기운 받아가쇼!

지난 2020년은 모두에게 순탄하지 않았던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 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음번에는 행운이 따라 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만큼 새해에 가는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절실하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하얀 소의 해이다. 근면 성실과 인내, 강인함의 상징인 ‘소’가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찾아온 것 같다.

양양군 역시 ‘소’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는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양의 대표 특산물인 양양한우가 탁월한 우수성으로 한우농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역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소와 함께 일구어 온 인간의 생활과 문화

농업중심 사회였던 과거에 ‘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축이었다.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묵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 양질의 식량을 제공해주는 등 농민들의 귀한 자산이었다.

소는 온순하고 우직한 성질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아왔다. 묵묵하게 제 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소에 견주어 칭찬하기도 했다. 소는 이처럼 인간에게 긍정적인 존재로 해석되었는데, 소와 관련된 다양한 풍속과 상징을 봐도 알 수 있다. 권농과 풍년을 기원하며 흙이나 나무로 토우(土牛) 또는 목우(木牛)를 만들어 세우던 풍습, 불가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법당 외벽에 그린 심우도(尋牛圖) 등은 소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어떠한지를 설명해준다.

세월이 흐르면서 농업의 기계화에 따라 더 이상 소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항체와 면역 세포를 만드는 주재료인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여전히 높은 가치를 지닌다. 고품질의 한우를 육성하여 생산·유통하는 ‘한우 산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양양한우 명품화의 비결은 '선택과 집중'

양양군은 1979년도 한우개량 사업을 최초로 시작해 전국 제일의 한우를 보유한 지역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한우의 번식 기반이 탄탄해서 사육두수 중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좋은 소를 찾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양양으로 모여 들었다. 농가에서는 비싼 값에 소를 팔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2000년도 이후 한우 농가와 사육 두수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쇠퇴하는 양양한우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선6기 2015년부터 '한우 명품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양양군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혈통의 고품질 한우 유전자원을 확보·보급하기 위해 매년 30여 개 사업에 2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정란 이식, TMR사료 공급, 축사신축, 조사료 생산·공급 등을 지원해왔다.

한우 명품화 사업은 단순히 한우의 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카우'라고 불리는 고능력 우량 암소를 생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은 한우개량사업소 및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우수한 암소(공란우)의 개체에 맞는 맞춤정액을 사용해 획득한 수정란을 수란우에 이식함으로써 10년에서 20년 걸리는 한우 개량 과정을 단축시켜 높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320마리의 수정란 이식을 지원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생산된 암소에 대해서는 가축 경매시장이나 개인 판매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

도록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황병길 과장은 양양한우 명품화 사업이 한우사육 규모보다 성적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며, 한우농가의 성적은 농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우를 키우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많은 두수를 키워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지만, 많은 투자자본이 수반되어 자본이 약한 농가들은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료나 밀소구입비 같은 생산비를 줄여 두당 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무리한 투자 없이도 수익성을 올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고능력한우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한우개량을 통해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거세우 출하성적의 우수함과 농가 고소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양양한우 브랜드

양양한우를 명품화 시키기 위한 5년간의 노력은 ‘강원도 한우(거세우) 1등급 이상 출현율 92.69% 달성’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 특히 2019년도 전국한우능력평가에서 강현면 이달형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지역 한우산업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황병길 과장은 덧붙인다.

“우리 군은 2015년도 1등급 출현율이 79.6%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출범 이후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으로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을 비롯해 거세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TMR 사료비 지원, 자가배합기 구입,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구입 공급, 이 밖에도 송아지제각, 거세 시술, 암소 번식 검진 등을 실시하여 최근 1등급 출현율 최상위권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적극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김진하 군수의 폭심과 지역 한우농가들의 결집된 노력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0년은 지역 축산농가에게도 어려운 시기였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일부 풍수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 자력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양군은 지역축협 및 재난부서와 협의하여 가축재해보험 의무가입과 축산시설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소의 해를 맞이하여 양양군 대표 축제인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현장에서 한우 시식 코너를 마련하고, 강원축산한마당잔치가 개최될 경우 우량 암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양양 지역의 한우 사육농가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240여 농가에서 한우 7,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양양군은 2022년까지 한우 8,000두 사육을 목표로 적정 사육두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해 가고 있다. 또한, 축산업의 가능성을 보고 귀촌하는 후계농과 젊은이들도 늘고 있어 양양군 한우 산업의 밝은 미래가 예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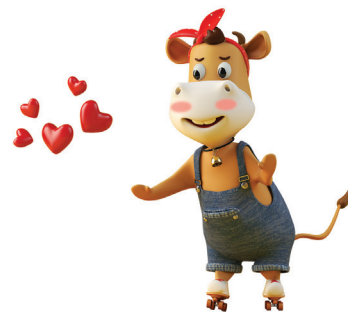
앞으로도 양양군은 양양한우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지역 한우 농가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다.



새해 넷째 아이를 맞는 진순조 · 이채민 씨 가족 소띠 해, 새가족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안타까운데요. 양양군에서도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넷째가 탄생하는 진순조씨네는 이런 우려의 소리도 아랑곳없이 시끌벅적합니다. 지난 12월에 넷째의 탄생을 앞둔 진순조 · 이채민씨네 댁을 찾았습니다.





다둥이네 부러워 놀러 왔어요~

양양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진순조·이채민씨네는 세 아이의 활자한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게다가 이달 13일 출산 예정일인 넷째를 기다리는 즐거움으로 북적거리는데,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진순조씨는 부끄럽기도 했대네요.

“사실 친구들이나 동네에서도 아내가 임신한 줄 몰랐어요. 살이 찼다고 했죠. 그러다가 넷째라는 걸 알리고 나니까 좀 부끄럽기도 했죠. 왜냐면 40대 중반이 넘어 아들을 결혼시키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낳으니... (웃음) 그래도 좋습니다. 친구들

도 지금은 엄청 부러워하죠. 원래도 우리 아이들 보러 자주 오곤 했거든요.”

올해 47세로 어느새 중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늦둥이를 맞이하는 마음이 버겁기도 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늦게 아이들을 낳아서, 올해 첫째가 9살, 둘째가 7살, 셋째는 5살이 되고 새해 넷째가 태어나니 친구들 중에는 가장 늦은 셈이다. 하지만 넷째 소식은 반갑기만 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설렌다. 출산일이 가까운 부인 이채민씨는 조심해야 할 시기라 만날 수 없었지만, 건강하게 출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심

“건강하죠. 아이 셋을 낳고 육아하면서 별다른 내색을 안 하니 제가 고맙고 감사하죠. 양양은 산부인과가 없지만, 정기검진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오고 있어서 검진도 잘 받고, 영양제도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양양에 병원이 없어서 출산은 강릉에서 해야 해요.”



가족이 건강하니 감사하지요.

양양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조산초등학교 유도부 코치도 맡고 있는 진순조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대학에서 유도를 한 후 2005년부터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도 운동을 좋아해 큰아이는 조산초등학교 유도부로 활동하고 있다. 체육관이 집이니 늘 아이들과 운동을 하며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마치 요즘 시대 사람들 같지 않은 모습이다.

요즘 어떻게 아이를 낳이나 낳고, 어떻게 키우고, 육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있지만, 진순조씨는 호탕하게 웃으며 가족이 건강하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다자녀 지원으로 든든해요.

아침이면 첫째와 둘째와 함께 조산초등학교로 출근하는 진순조씨. 조산초등학교는 전교생 41명에 유도부가 10명으로 작지만 단단한 학교이다. 지난 2016년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따고, 지난해는 도내 여자초등부 단체전에서 2등을 하는 등 성적도 좋다. 유쾌한 아버지이자 코치인 진순조씨 덕분인거 같다.

“저도 어렸을 때 3남매이고 아내도 4남매로 컸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은 날자고 약속을 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면 되지 않겠어요?”



세 아이는 운동을 좋아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잘 지낸다. 요즘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다양해서 넷째가 있는 가정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 덕분에 참 좋다고 한다. 삼남매가 함께 자라고 지금도 체육관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하는 어머니께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밥을 얻어먹으니 염치 없어도 또한 감사하다고. 아이들과 체육관에서 운동을 즐기는 다둥이 아빠의 웃음소리가 새해 소피 해의 새아기를 만나는 즐거움과 함께 널리 퍼진다.

글·사진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길



현북면 원일전리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과 효의 마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산촌체험의 정수
희망이 가득한 2021년을 소망하며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길처럼, 새해가 펼쳐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앞서 걸어간 이들의 행적은 훌륭한 예시가 되어주기도 한다. 척박한 산촌에 들어가 땅을 일군 '원일'이라는 화전민의 뒤를 이어,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한 마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북면 원일전리는 이곳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 온 선조들과 어르신들이 남긴 자취를 지도 삼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으로 전통의 미덕을 이어가는 동시에, 마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가는 원일전리 사람들을 만났다.



효와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

양양 남대천 상류에 자리한 원일전리에는 60가구가 사이좋게 살아가는 산골 마을이다. 120명의 주민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로, 2006년에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장수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주변과 마을 안길에 감나무 1,000그루를 심어 만든 감나무 산책로는 원일전리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풍경은 산촌에 정겨움을 더한다. 감 수확시기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감을 따고 꺾감을 만들어 먹거나 판매하기도 한다. 공동여 키운 감나무가 동네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노년층이다 보니 마을행사 대부분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기적으로 건강체조 교실이나 노래교실, 어버이날 효도 관광 등을 추진하고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회관에서 모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합동도배를 올리며 노인공경과 효(孝) 사상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마을 일에 참여한다. 마을회관 옆에 자리한 전통공예체험관은 마을 어르신들의 자부심이 깃든 공간으로, 이곳에서 옛 방식 그대로 짚공예품을 생산해 마을 소득에 일조하고 있다. 겨울 농한기에 소일삼아 하던 짚공예가 이제는

마을의 특화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짚신, 가마니, 망태기, 명석, 삼태기, 함지 등을 똑딱 만들어 내는 어르신들의 솜씨는 마을 밖까지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는가 하면, 양양문화제와 같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짚자리 주문이 대량으로 들어와 바쁜 시간을 보냈다. 전용주 반장(74세)은 짚공예품을 만들어 거둔 수익으로 단체관광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며 세월이 흐르면서 짚공예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짚공예의 진짜 기술자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하고, 지금은 그 밑에서 따라 하던 사람들이 남아 소소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는 가물가물한 추억이 된 옛 전통들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마다 빠짐없이 성황제를 올리고 마을의 대소사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결속력은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이어진 역사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일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산촌체험 공간

원일전리는 봄이면 산나물이 지천이고, 여름이면 마을 앞 계곡에서 천렵을 즐길 수 있고, 가을이면 깊은 산속에 송이향이 그윽하고, 겨울이면 눈 덮인 설악산의 정취가 아름다운 곳이다. 사계절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원일전리는 2011년도에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어 ‘금풀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민들에게 산촌의 정서와 여유로운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항금 들녘을 사랑하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금풀애마을에는 친환경 나물 주먹밥 도시락 만들기, 김치명인과 함께하는 김치 담그기, 명이나

물 장아찌 담그기 등 소박한 산촌 음식 체험을 비롯해 냇가에서 전통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천렵 체험, 숲 해설 등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쾌적한 숙박공간과 너른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수학여행이나 단체 야유회 장소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체험프로그램과 숙박시설 운영은 마을의 주 소득원으로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금풀애마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



났다. 숙박객 수도 예년보다 줄었고,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2020년에 취임 첫 해를 맞이한 윤종철 이장(51세)에게도 걱정과 고민이 깊은 시간이었다.

“(숙박과 체험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예년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한 달 동안은 아예 손님을 받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태풍 피해 복구 때문에 여기저기 포클레인을 끌고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9년 전 양양으로 이주해서 윤종철 이장과 인연으로 마을 일을 시작한 박화권 매니저(47세)는 2020년에 새롭게 기획한 마을 축제

를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도 못 해 본 것이 가장 아쉽다.

“지역 축제가 대부분 비슷해서 조금 특별한 행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양에서 양양하자’라는 주제로 고양이 축제를 기획했죠. 수도권에 있는 고양이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마을에 길고양이 집도 짓고, 다큐멘터리 상영도 하고, 사진전도 개최하는 등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길고양이가 많거든요. 몇몇 마을주민들과 (고양이 집) 목공 키트를 제작하고,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서 짚풀공예로 초가지붕도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발되었죠. 하지만, 내년에는 꼭 진행하려고요.”



2021년에 거는 기대와 희망

2020년의 행보는 순탄치 않았지만, 새해를 맞아 원일전리 주민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2021년이 되길 꿈꾼다. 윤종철 이장의 새해 소망은 지역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재난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되는 것이다. 그는 얼른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 예년처럼 활발하게 마을 사업을 펼치고, 어르신들이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다. 박화권 매니저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평소 자신을 예뻐해 주던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마

을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소망했다. 전용주 반장 역시 마을이 잘 되려면 주민들이 건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을을 나서기 전에 원일전리의 가장 큰 어른인 전만복 할머니(106세)에게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는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모두 건강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전하며 모두의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오랜 세월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어르신들의 말씀은 힘이 세다. 전만복 할머니의 말씀처럼 새해에는 모든 것이 관찮아질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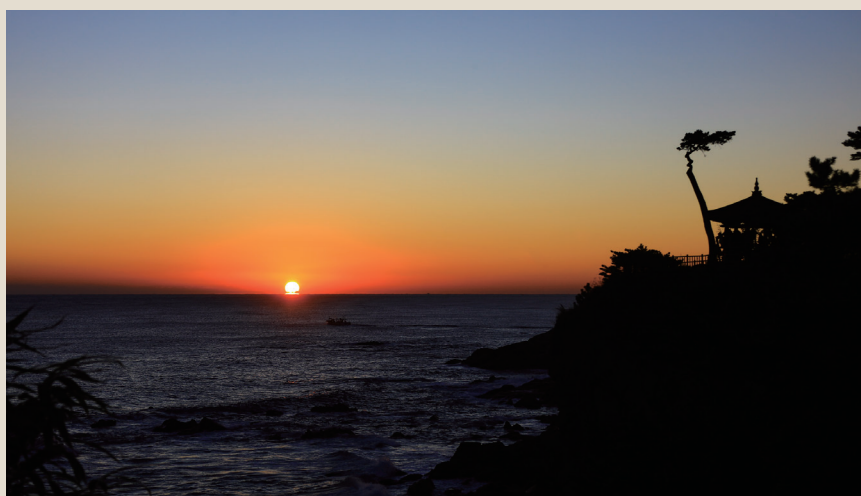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낙산사 의상대에서 바라본 새해 일출!
1986년의 일출과 2020년의 일출, 변함없이 아름답습니다.
몇 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지만
의상대 일출은 한결같이 붉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차게 떠오릅니다.

2021년 신축년 흰 소띠 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밥상에서 ‘겸상(兼床)’이라니 말도 안 되는 밥상문화 풍습?

“독상 제도를 버리고 온 가족이 한 밥상머리에 모여
앉아서 화기애애한 중에 같이 먹으면 식욕도 증진되
고 반찬이 적어도 후적거리지 않고 또 남은 반찬이
별로 없는 만큼 그것의 처치에 곤란한 점이 없을 것
이다”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020. 12. 4일부터 시범 운영

양양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12월 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용객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화를 위해 양양읍 남문리 3-23번지 외 5필지 2,490㎡ 부지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자주식 2층, 3단 규모로 1층과 2층에는 각각 39면, 54면, 건물 옥상(3층)에는 57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총 150면 규모의 주차시설을 완비하였다. 또한, 차량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주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계하였으며,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부터 양양시장상인회와의 시설물 위탁계약을 통해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양양군,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 추진

양양군, 빅데이터 관광분석... 관광객 늘고 젊어졌다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연령층도 20~30대 등 젊은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을 도입을 통해 상관분석, 관광분석, 생활인구분석을 한 결과, 2020년 8월 누계 전체관광객수는 약 10,403천 명으로 전년(약9,359천명)대비 1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양 지역을 찾는 관광객 거주지별 현황은 경기도,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비율이 약 57.3%로 높았다. 특히, 2018년에 양양을 찾는 연령층이 50대로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2020년으로 오면서 연령층이 20~30대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써, 양양 관광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젊은층의 소비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층 유치를 위한 컨텐츠를 마련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개편은 복지행정 수요 충족 및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가족과를 신설하고, 남대천을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지역의 랜드마크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남대천보전과를 새로 설치한다.

정원 과소부서 기능보강 및 업무조정 등에 따라 대외정책과는 기존 업무 외에 교통 업무를 보강·이관하여 전략교통과로, 안전교통과는 교통업무가 대외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난구호 업무를 신설하여 재난안전과로, 오색삭도추진단은 관련 업무 2개 담당을 신설하여 삭도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추진단은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되고, 문화체육과 내 도민체전 TF팀이 신설되어 대회 준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담당 단위에서는 보건소 내에 감염병대응담당과 치매관리담당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 후생복지담당, 관광과 관광개발담당을 신설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축민원의 원스톱 처리와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구항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최종 선정

양양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1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서 인구항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7억원을 확보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소를 선정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으로 양양군 인구항이 선정됐다.

인구항은 전통어업과 서핑, 낚시, 스낵스쿠버 등 해양레저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연중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어촌·어항은 상대적으로 낙후됨에 따라 금번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방파제 보강, 접안시설 확충, 수산물가공판매장, 캠핑장, 어린이 바다놀이터 등을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물론 해양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주민 소득창출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발전을 선도할 잘사는 어촌 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 추진

그동안 읍·면에서 다루던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건축민원 원스톱(농지, 개발행위, 산지 등) 처리는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에 이관하여 전문부서에 배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한다. 업무 이관에 따라 본청에서 처리되는 업무는 건축신고 및 건축물표시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 등), 건축물해체신고, 공작물축조신고 등 건축 민원 전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을 방문하지 않고 본청을 방문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민원 원스톱 처리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양군, 5개년 도시가스 공급 기반 시설 지원 사업 추진

양양읍 지역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5개년 양양읍 도시가스 공급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은 양양공급관리소에서 양양읍 양우내안아파트까지 공급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연창리와 구교리 일원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360여 가구에 공급하였다. 2020년은 열방아파트를 비롯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구교리, 군행리, 성내리 일원 등 600여 가구에 공급하였으며, 내곡리 이편한세상, 한양수자인아파트 일원까지 2년간 총 7km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1년은 연창리 보건소부근 본관에서 남문리 일원등 해오름 아파트일원으로 2km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2년은 남문리 해오름아파트에서 서문리 주공아파트, 하이팰리스 일원과 2023년은 청곡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공급기반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무기 연기

1월 11일부터 22일(주말 제외)까지 농정시책과 영농기술, 식품자원 등 15개 과정 1,010명의 농업인 실용교육을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 집단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은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되고 안정화가 된다고 판단 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영농기 이전이라도 작목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은 당초 계획대로 1월 29일 한 접수하며, 2021년 사업안내책자는 읍·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2020. 12월 말까지 배부하였다.



양양군, 2021년도 예산 3,364억 7,371만원 확정

2020. 12. 18일 양양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양양군 예산안이 3,364억 7,371만원으로 승인 의결되었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며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내년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줄 것과 내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로 예산안의 원안가결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한마음 한뜻의 의지를 다지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을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양양비전 제시를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남대천르네상스사업, 양양종합터미널이전, 육아통합지원센터 등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게 되었다

「양양 서피비치」 2020 한국 관광의★ 본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매력을 창출한 관광지로「양양 서피비치」를 「2020 한국 관광의 별」본상을 수상지로 선정했다. 현북면 중광정리에 소재한「양양 서피비치」는 2015년부터 서핑 전용해변을 표방하며 사업을 시작한 후, ‘바다를 즐기는 이국적인 프라이빗 비치’라 불리며, 연간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각종 SNS상에 매일 1000건이 넘는 인증샷이 올라오는 양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양양군은 관내 관광 거점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서핑과 연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젊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모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20. 12. 29일 오전 10시부터 21시 5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세종청사 7층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동안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및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쟁점 확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중앙행심위 임송학 상임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노선을 찾아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9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하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역 환경·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반드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각오로 기존의 오색삭도 추진단의 명칭을 삭도추진단으로 바꾸고 주변개발담당과 자연친화담당을 신설해 담당을 4개로 확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해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양양군의회

2021년 새해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화합과 소통으로
군민지향의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희망의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새해 일출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이 솟아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 특히 나보다는 남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몸은 양양에 있지 않아도 늘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출향군민 여러분과 어려울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신 지역의 부대장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제8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된 후 세 번째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해, 양양군의회 의장 김익성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폐회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원안 가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이었던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조례안·규칙안」 20건, 125건의 처리요구사항이 담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 결과, 최종 원안가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함으로써 2020년도 숨 가쁜

의정활동을 마쳤다.

김의성 의장은 “2021년도 새해를 설계하는 제252회 정례회를 통해 군민들이 의회에 부여해주신 군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양양군의회로서, 동료의원들과 더욱 열정적으로 양양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 추진 촉구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12월 23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정상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환경부가 육상국립공원 중 처음으로 시범 승인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3만여 양양군민의 기대와 염원 가운데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해 9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통보에 의해 추진의지가 무참히 짓밟힌 바 있다. 이에 민의를 대변하는 양양군의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김의성 의장은 “군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미래의 자연자원인 설악산의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사회약자에게 자연환경

에 대한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의 염원인 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2월 30일, 양양군의회 김우섭 의원에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여하였다.

김우섭 의원은 양양군의회 최다선인 4선의원으로,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우섭 의원은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께 보답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0년 의정발전 유공자 포상 수여

양양군의회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평소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공로가 큰 유공자들(마을이장, 부녀회장 등 총 19명)을 발굴하여, 지난 12월 31일 각 읍·면 사무소에서 시상하였다.

또한 양양군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자세로 직무를 성

실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였다. 포상대상자는 4명(건설과 윤창수, 경제에너지과 김주일, 안전교통과 최해선, 보건소 엄근혜)으로 군 공무원 중 적극적인 행정 마인드로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공무원들을 선발했으며, 지난 12월 31일 의회 의장실에서 시상하였다.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이라 흰 소의 해다.

고대 신농(神農)씨가 농사를 짓게 하고, 후직(后稷)씨가 농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우직한 소를 기르고 소가 농부가 시키는 데 순진하여 논밭이 밭갈이 짐을 나르는 일등 힘든 일을 도맡아 한 은혜로운 소다.

올해는 소 11마리가 힘써 논밭을 가는데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은 4마리의 말이 끌어들인다고 하니 농촌에서는 풍수해가 없도록 살피 농사해야 하리라 믿는다.

양양에는 흑소가 있었다

맹사성이 태종 9년(1409년) 윤 4월 7일, 외방종편(外方從便) 조치되었을 때, 상운역(祥雲驛) 역리(驛吏)로 와 있다가 이듬해인 1410년 8월 10일 직첩(職牒)을 받아 경외종편(京外從便) 되어 전직하였다.

잠시 상운역 역장(驛長) 때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강원 감사가 관동을 순시할 때 상운역에 들르니 맹공(孟公)은 이노(吏奴)에 명하여 오찬을 준비하는데, 산해진미(山海珍味)로 감사를 대접하게 하고 맹공은 맥반(麥飯, 보리밥)을 먹었다. 출영할 때에도 역마(驛馬)를 타지 않고 흑독(黑犢, 검은 송아지)을 타고 나갔다.

감사가 맹공의 특수한 것을 보고 물어보니 맹공이 답하기를

“나는 죄인이라 감히 국마(國馬)를 탈 수 없고 또 맥반은 관식(慣食, 늘 즐겨 먹는 밥)이라” 하니 감사가 그 뜻을 알고 감영에 돌아가 상소(上訴)하여 사(赦)를 얻어 맹공을 내직(內職)으로 소상(召上)하였는데 세종조(世宗朝)에 좌의정(左議政)까지 역임하였다.』

또한 맹사성(孟思誠)은 음률에 정(精, 뛰어나서)하여 왕궁 “관습도감 제조(慣習都監提調, 조선 초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에서 정악(正樂)을 가르치기도 했다.”

상운역은 고려시대는 명주도(강릉), 조선시대 초기에는 대창도(강릉)의 속역이었다. 1462년(세조8) 개설된 상운도(祥雲道)의 중심역을 상운역으로 하고 관아에서 찰방이 15개 속역을 관할하였는데, 1894년 폐지되었다. 상운도는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에 이어지는 역로였다.

영혈사 심우도의 황소와 흰 소

양양에는 토종한우 흑소와 칙소, 흰 소, 황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한다. 1938년 조선우심사표준에서 ‘한우의 모색을 적갈색으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일제가 황소를 장려하여 다른 토종한우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현재 양양에는 칙소가 20여 두가 농가에서 자라고 있다.



영혈사 원통전



현남면 입암리 침소

효의 이야기를 품은 자심탑이 있는 양양읍 화일리 영혈사 원통전 벽화, 심우도의 4번째 장면 득우(得牛)에는 황소, 6번째 장면 기우귀가(騎牛歸家)에서는 흰 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세시풍속

정월 초하룻날부터 열이튿날까지 12간지(干支)의 이름에 따라 쥐날·소날·호랑이 날 등으로 부르고 이에 따른 관습이 전해오고 있다. 이것을 ‘일진 가리기’, ‘날 가리기’라고도 부른다.

간지는 10천간과 12지지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 동물로 바꾸는데, 12일간을 동물의 모습에 따라 털 있는 동물이 그해 첫날에 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일진에 따라 정월에 처음 드는 첫 소날을 ‘상축일(上丑日)’이라 하는데 정초 5일 이내에 들면 그해에는 연중 소의 값이 비싸질 것으로 예측도 하였다.

첫 상축일은 소의 명절날이라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연자방아도 켜지 않고 잘 먹였다. 칼이나 낫으로 무엇을 자르거나 끊는 일도 하지 않고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도 않았다. 이는 도살의 의미도 있으므로 소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긁지 않으며, 남자가 칼을 만지면 평소 연장에 다친다고 믿었다. 이날만큼은 밥과 나물을 쌀을 이는 이남박에다가 담아서 먹도록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쌀이 풍년인지, 채소가 풍년인지 점도 쳤다.

군웅신을 집에서 모시는 양양 농가에서는 외양간에 삼베를 20~30cm 정도 끊어 매년 걸며, 그 밑에 제물을 차려 놓고 소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빈다. “군웅 장군님, 그저 우매 대매 가지 불듯 외 불듯 잘 퍼져서 일 년 열두 달 잘 크게 해 주십시오.” 우매(牛馬)는 소와 말을 뜻하며 가지나 오이 줄기가 퍼져 나가듯이 잘 크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강현면 회룡리의 소 키우는 집은 군웅신에게 상축일이면 탈이 없게 해달라고 빈다. 상축일이 아니어도 소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외양간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낫기를 빌었다.

범부리에서는 설날 만두 국을 끓일 때 소의 만두를 주먹만 하게 만들어서 소에게 주면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도 잘 낳는다고 한다. 기계화 이전 농가에서는 소가 힘든 일을 도와주고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큰 재산이라 외양간은 부엌과 같은 공간에 두고 잘 돌봐왔습니다. 일찍이 동물복지를 실천한 고장이다.

글·사진 양양문화원



4번째 장면 득우(得牛) 황소



6번째 장면 기우귀가(騎牛歸家) 흰 소

이달의 책이야기

연년세세

황정은 지음 | 창비 | 2020. 9월



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황정은은 '작가의 말'에서 "사는 동안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났"고, "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전한바, 『연년세세 年年歲歲』에 실린 소설 네 편의 연작소설을 통해 가족, 사회, 친구, 국가 등 여러 관계 안에서 '나'를 이루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겪은 비극과 참사, 크고 작은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이순일과 두 딸, 한영진과 한세진, 한세진과 하미영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와 평범한 일상을 통해 보여준다.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138면) 빌던 이순일의 바람은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서로를 무심한 듯 다독이며 견뎌내는 날들 속에 어찌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끝내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뒤늦게 용서받지 못해도, 사람들을 실망시켜도, 삶은 바쁘게 지나간다. 현재를 있게 하는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있게 하는 현재를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연년세세 年年歲歲』는 영원히 기억될, 꼭 필요한 이야기로 남아 지금, 여기의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책 속 한 구절

■ 잘 살기. 그런데 그건 대체 뭐였을까, 하고 이순일은 생각했다. 나는 내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랐다. 끔찍한 일을 겪지 않고 무사히 어른이 되기를,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잘 모르면서 내가 그 꿈을 꾸었다. 잘 모르면서. (『무명』 138면)

■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삶은 지나간다 바쁘게.

나탈리는 바쁘게.

울고 실망하고 환멸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말해 사랑하면서.

(『다가오는 것들』 182면)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

조구만 스튜디오 글·그림 | 더퀘스트 | 2020. 12월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 조구망지만 안 중요하단 건 아냐!"

이 세상의 모든 조구마한 것들에 보내는 따뜻한 찬사! 뽀뽀뽀뽀 귀여운 그림과 웃대 있는 메시지로 수만 팔로워와 소통하는 조구만 스튜디오의 첫 번째 에세이 『우리는 조구만 존재야』. 3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 가장자리에서 적당히 살고 있는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캐릭터를 통해 일상의 여러 면면을 지그시 들여다보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나를 둘러싼 관계들에 대해, 그리고 인생 전반에 대해 조구만 스튜디오가 이제껏 그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밀한 이야기가 만화, 에세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된다.

커피를 좋아하면 생기는 일

서필훈 지음 | 문학동네 | 2020. 12월



커피가 좋아서, 전 세계 커피 산지 곳곳을 누비며 살게 된 사람 커피리브레 서필훈 대표의 무모하고 진지한 '덕업일치' 스토리!

취미를 직업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업으로 삼게 되면, '밥벌이의 지겨움'과 함께 그 이면도 마주하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커피에 미쳐' 16년간 전 세계 커피 산지를 누비며 커피 생두를 한국에 들여오는 일을 하게 되고, 그도 모자라 남미 오지에서 직접 커피 농장을 운영하기까지 하는 사람에게 '덕업일치'란 무엇일까. 커피는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 책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스페셜티커피 전문가 커피리브레 서필훈 대표의 산문으로, 커피로 인해 그가 겪어온 '범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담겼다.

글·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angyang@scinema.org ☎033-673-7050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안내

- 납세의무자 : 1년 이상 면허를 소지한 자
- 과세기준일 : 2021. 1. 1.
- 납부기간 : 2021. 1. 16. ~ 2. 1.
- 납 부 방 법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은행 CD/ATM 납부(현금 및 신용카드 가능)
 -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문의처 : 세무회계과(☎670-2274)

둔치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 단속시행 : 2021년 01월 01일부터(장날포함)
- 단속시간 : 오전 09시 ~ 20시(장날 07시 ~ 20시)
- 단속유예시간 : 주차 후 10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및 이동형 차량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 양양교 ~ 양양대교 (843m)
 - 새한공업사 앞 ~ 전통시장 주차타워 구간 (200m)

2021년 미래농업대학과정

교육생 모집

무료
과정

모 집 요 강

- 모집인원 : 25명 내외(남녀 구분 없음)
- 교육기간 : 2021. 3. 15. ~ 9. 2.(6개월 / 합숙)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지원자격 : 만 19세이상 50세 이하
영농정착을 희망하는 강원도민

교육신청 및 선발

- 신청기간 : 2021. 1. 4. ~ 2021. 2. 10.
- 구비서류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고유식별번호 미포함)
- 신청장소 : 거주지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
- 합격자 발표 : 2021. 2. 26.(금)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자세한 안내는 미래농업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ares.gangwon.kr/hb/atc/sub03_02)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 지원기간: 2020.10월~12월 납부분(연도내 소급)
- 신청기간: 2021. 1. 10.까지
- 신청방법
 -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층)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2021년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인원: 22명(지역아동센터 근무)
- 접수기간 장소: 2020. 12. 28.(월) ~ 2021년 1. 15.(금) / 노인복지관 1층
- 면접일정 및 장소: 2021. 1. 18.(월) ~ 1. 22.(금) / 노인복지관 2층 프로그램 4실
-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 온라인(복지로)시스템을 통한 신청 가능
 - ※ 단, 온라인(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자는 신청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1통,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현장에 비치(현장작성 제출 가능)
- 참여자격
 - 참여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중 노인일자리 참여희망자
 - ※공익형사업 신청 포함 부부가구는 1명만 신청 가능, 공익형 사업 참여자 및 대기자 신청 불가(참여 포기 시 접수 가능)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도권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수도권 계절관리제 및 전국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시 시·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비상저감 조치	
시행 기간	2020.12.01. ~ 2021.3.31. (4개월)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전일 17시 안내	
시행 시간	평일 06~21시 (주말, 공휴일 제외)			
시행 장소	서울, 경기, 인천		전국 시군구 ※강원도 : 춘천, 원주	
단속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 제외			
단속 유예 대상	서울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2020.12.31.) ※ 단, 2021.11.30.까지 저 공해조치 완료시 <u>과태료 면제</u>	인천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2021.11.30.)
			강원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21.12.31.)
	경기, 인천	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 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21.03.31.)	13개 지자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2021.06.30.)
과태료	1일 10만원 ※최초 적발 지자체에서 부과			

※배출가스 등급 확인: 1833-7435(전화), emissiongrade.mecar.or.kr(사이트)

※문의 사항: 033-670-2335(양양군청 환경과), 지역번호+120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지원기간: 2020.10월~12월 납부분(연도내 소급)
- 신청기간: 2021.1.20.까지
- 신청방법: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3층) 및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 (근로자용 및 사업장용)
 - 공동주택 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공동주택 관련 사업장만 해당)
- 문의처: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8

정보꾸러미

양양 양지술곳간, 지역 대표 전통주 제조업체 도전

양양군 강현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양지술곳간은 올 2020년 6월 소규모 창업사업장인 양양의 전통주 업체로서,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모든날에 약주', '양지백주 탁주'는 무첨가 순곡주이자, 세 번 빛은 저온 발효숙성 프리미엄 삼양주이다.

또한 동해안 최고의 쌀인 강현농협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 멥쌀과 찹쌀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유통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고급스러움을 컨셉으로 하는 디자인으로 전통주 특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우리술 '모든날'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주최 전통주 경연대회 등 술빛기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경력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강릉단오제 대한민국 전통주선발대회 장려상과 은상 수상, 대한민국명주대상 청주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전통주 기초·심화과정 및 전통발효식품과정 수료, 전통주연구회 활동, 한국가양주연구소 최고지도자과정을 교육받고 있다. 또한 품격 있는 상품 가치를 위해 2020 농특산상품 디자인브랜드교육을 수료하기도 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0.12~2021.03)

“미세먼지 대응, 함께 해주실거죠?”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방법 —

Q&A

Q.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인데 왜 국민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나요?

국내 미세먼지는 기상요인과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요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외 대책의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모두에게 절박한 사안으로 양국 정부는 ‘각자 또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국내 대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Q. 코로나19로 미세먼지는 좋은 반면, 경제는 어려운데 꼭 계절관리제를 해야 하나요?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원인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그간 정부의 노력효과와 함께 특히 기상요인(강수량 증가 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상상황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농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저항력 약화로 초래하므로 코로나19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강화된 계절관리제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실천해요

- 01**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 습관 지키기!
- 02** 폐기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 03**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04** 불법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하기!

우리 가족 건강! 이렇게 지켜요

- 0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 06**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
- 07**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 08**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해결사!

**미세먼지 없는 푸른하늘
“계절관리제”실천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1년도/4인가구 기준)

구 분	지급급여	구 분	지급급여
생 계	1,462,887	주 거	2,194,331
의 료	1,950,516	교 육	2,438,145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